



나란히 선 남북정상 부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,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. <한국공동사진기자단>



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'한반도의 평화와 번영,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'을 하고 있다.

# “우리는 하나” 평화와 번영을 심다



북에서 남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각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,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.



1953년생 소나무 식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 1953년생 소나무 공동식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

프레스센터의 눈 2018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.



국민의 눈 2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월경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맞이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. 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